

'예비 살인행위' ... 음주운전 도주차량 안쫓나 못쫓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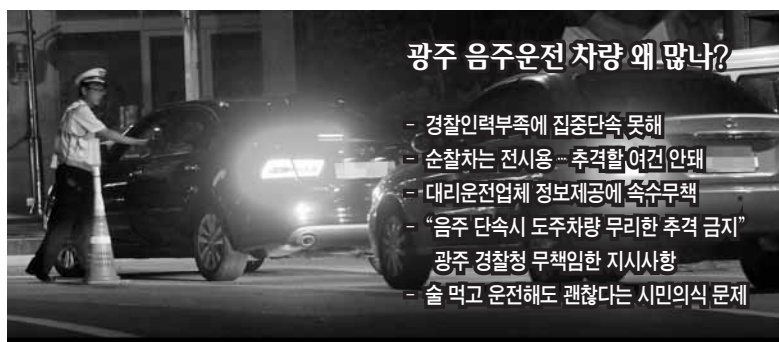
'무리한 추격 금지' 공문에 시민들 분통 2차사고 부추기는 단속 시스템 바뀌야

음주 운전자가 단속중인 경찰관을 매달거나 치고 달아나는 일이 잇따르는 가운데,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가 도주하는데도 경찰은 쫓아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음주 단속을 확대한다고 했지만 가용 인력이 없어 단속 여건이 따라주지 못하는가 하면, 음주 단속 시간과 장소도 '뻘한 지역과 시간대'에 이뤄져 공공연하게 알려지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비 살인'이라는 음주 운전을 막기 위한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음주운전 '살인 행위'라고 하더니=음주 운전은 '살인' 행위나 다를 없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그럼에도

도, 현재 광주경찰은 '음주 단속시 도주 차량'에 대해서는 무리한 추격 금지를 권하고 있다.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있따라 부상당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방침이지만, '살인 행위'를 저지른 음주 운전자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남치·강도 용의자가 달아날 때에도 이같은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는 비아냥이 나온다.

경찰이 음주 운전자 추격을 포기하면서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밟아질 수 밖에 없는 또 다른 사고는 방관하는 자세라는 비판도 거세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는 광주 9685건(정지 4899건·취소 4786건),



광주 음주운전 차량 왜 많나?

- 경찰인력부족에 집중단속 못해
- 순찰차 전시용 - 추격할 여건 안돼
- 대리운전업체 정보제공에 속도무책
- '음주 단속시 도주차량 무리한 추격 금지'
- 광주 경찰청 무책임한 지시사항
- 술 먹고 운전해도 괜찮다는 시민의식 문제

전반(정지 4849건·취소 5105건) 9954건에 이르는 등 줄지 않는 것도 경찰의 '관대한' 조치 때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경찰의 이같은 방침이 현행 허술한 단속 시스템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현재 광주지역 일선 경찰서는 거의 매일 밤 10시~자정, 새벽 1시~4시 까지 하루에 두 차례 폭 20m 이하도

로에서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대낮에도 오후 2~4시 음주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이때 음주 단속 현장 전·후 방에 순찰 차량을 배치하고 도주 차량이나 사고 발생 시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 인력이 부족해 순찰차 운전자가 단속에 투입되는 상황에서 도주 차량 추격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나마 현장에 배치된 순찰차도 음

주 단속을 피해 도망가려는 차량을 신속히 뒤쫓기 위한 예상 도주차가 아닌, 교통 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해 멀리 떨어진 공간에 배치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무용지물이나 다를 없다.

◇뻘한 장소, 뻘한 시간=광주 한 대리운전 업체는 지난 12일 '한국은행 앞, 북부서 앞, 신창동 우체국 앞'이라는 메시지를 고객들에게 보냈다. 대리운전을 홍보하면서 야간 음주 단속이 시작되는 시각보다 30분 먼저 음주 단속 장소를 알려준 것이다. 서부경찰은 이날 대리운전업체가 언급한 장소에서 음주 단속을 실시했다. 자칭 대리운전 업체가 미리 단속 장소를 알고 고객들에게 흘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일단, "광주지역 음주 단속 장소가 한정돼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즉, 매년 비슷한 장소에

서 음주 단속을 하는 데 따라 예상 가능하다는 것으로 차제에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만 하다.

◇인력 부족에 단속 실효성? =광주지역 음주 단속은 최근 사건 예보제를 없애고 소로에서 대로, 주·야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확대됐지만 한정된 인력 탓에 효과가 크지 않다.

북구, 동구, 남구 지역의 경우 음주 단속을 지원해줄 의경 인력 확보가 쉽지 않아 서부·광산 지역에 비해 음주 단속이 느슨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경찰이 음주 단속 서류 작성·단속 차량 안전 지대 주차·음주운전자 경찰서 인계 등 1인 3역을 하는가 하면, 야에 단속 시간 중 잠시 단속을 멈추는 경우도 벌어지고 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니원침 (8860) 김장두



김학의 성접대 의혹 오늘 수사결과 발표



충장로 25시 음악사에 불... 광주동부소방서 소방관들이 17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 25시 음악사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화한 뒤 화재 원인을 찾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인터넷서 논쟁 벌이다... 상대女 흥기 살해

광주 30대 男, 신상털기로 부산 아파트 찾아가 범행 '충격'

온라인 상에서 벌어진 이념 논쟁이 현실 속에서 끔찍한 살인으로 이어졌다. 살인 사건을 계기로 이념 논쟁을 빚자던 막무가내식 비난 글이 인터넷 상에 폭주하는 2차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부산 해운대경찰은 17일 백모씨(30·광주시 북구 우산동)를 살인 혐의로 불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10일 밤 9시10분께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동 한 아파

트에서 미리 준비한 흥기로 김모(여·30)씨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백씨는 지난 5일 광주에서 부산으로 이동한 뒤 찔림방과 모텔에 머물며 김씨의 동네를 3~4차례 답사했으며 김씨가 자주 찾는 채팅사이트를 통해 로그인, 로그아웃 시간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김씨의 동선을 파악해놓고 있다가 10일 밤 집을 나서서 김씨를 무참히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씨는 지난 2010년 인터넷 사이트 '디자이너사이트'의 정치·사회 갤러리(정사갤)에 진보성향의 글을 올리면서 비슷한 성향의 글을 올리는 김씨를 알게 됐고 서로 채팅 사이트 아이디를 알려줄 정도로 가까워진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해 김씨가 보수 성향으로 '전향' 하면서 틀어지기 시작했다. 백씨가 고(故) 김대중, 노무

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지지하는 글을 올리면 김씨는 이를 반박하는 글을 써 참여하게 됐다. 2011년 12월 백씨가 김씨의 사진에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댓글을 달면서 악화됐다.

이후 백씨가 사과문을 올려 잠잠해졌던 두 사람의 관계는 김씨가 지난 3월 익명으로 올린 자신의 비방 글을 백씨가 쓴 것으로 오해, 재차 고소하자다며 반발하면서 격화됐다.

백씨는 이후 김씨 살해 계획을 세우고 인터넷 등으로 김씨 정보를 수집하는 이른바 '신상털기'에 나섰고 살해에 이르게 됐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김치 사업권 달라' 공무원 등 협박한 50대 검거

광주 서부경찰은 17일 김치사업권을 달라며 부당한 요구와 항의로 광주시청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공갈 등)로 김모(56)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2011년께부터 최근까지 광주시 산하 김치사업단 측에 지원과 사업권을 요구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치 소평물 사업을 하는 김씨는 광주시 김치사업단 출범 초기부터 사업단에 포함시켜 달라면서 상급 관계기관에 사실과 다른 불만사항을 신고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언론사를 직접 차려 기자 신분으로 시청에 빈번하게 출입하던 김씨는 결국 2013년 1월께 김치사업단으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사업권을 얻어내 500여만원을 계약금으로 받았지만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김씨 때문에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며 사업서에 밝히고 김치사업단 단장 2명이 사퇴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강진서 중학생 190명 집단 식중독

강진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 수백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30도를 웃도는 고온 다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아직 방학에 들어가지 않아 여름철 학교 급식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17일 해당 학교와 보건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부터 학생들이 설사와 구토 증세를 보이고 있다. 17일 오후까지 비슷한 증상을 보인 학생은 1·2·3학년 전체 190명으로 이 학교 학생 422명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학생

들이 증상을 보이고 있다.

이 중 8명은 증상이 심하게 결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교사 3명도 식중독 증세를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전날 점심으로 제공된 학교 급식인 고등어조림과 감자, 통닭 등을 먹은 후 이같은 증상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와 보건당국은 증상을 보인 환자들의 가검물을 채취하고 이들이 섭취한 음식물도 수거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l@

"코카콜라 병에서 벌레 나왔다" 신고

○코카콜라 병에서 벌레 나왔다는 민원이 접수돼 구청이 진상조사에 착수.

○박모(54)씨는 지난 13일 오후 7시께 광주시 서구 풍암동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코카콜라 병에서 1cm가량의 벌레 7마리가 발견해 회사와 광산구청에 신고했다는 것.

○이에 대해 코카콜라 회사 관계자는 "공정 중에 3~5 마이크로 필터 등으로 위생 처리를 하고 있으며, 병뚜껑 틈에 있는 벌레가 빨리 들어간 것 같다"며 식약청에 자진신고 했고, 구청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자연산 참을 직접달여 만든 14년 전통

참을 보양식전문점

삼계탕 전문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착한 가격"

참을 토종 참을닭 / 울 청둥오리 / 울 삼계탕

한방 한방 백숙 / 한방 청둥오리 / 춘담백숙 삼계탕

토종참을닭 (오른, 식사소 포함) **40,000원**

춘담백숙 **38,000원**

울의 효능 위염, 위궤양 효과 / 과음 및 숙취해소 / 장부실 개선 및 여혈 제거/항암작용, 암세포 성장 억제 / 원기회복 속이 냉하거나 손발이 찬데

함양울닭 062)515-5757(울칠울칠)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9-3 해피뷰병원 뒤(구,삼성병원), 수천초교 후문 건너편

오천경매투자

경매 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매주 2시간, 3개월 스터디 합니다. NPL과 특수물건만 전문 취급하고 실제 낙찰 사례 교육이고 1:1 개인 교육합니다.

교육비는 1,200만원이고 경매로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 드립니다.

단, 상담 후 결정합니다.

주, 오천경매 대표이사 최 선규 드림

문의 : 010-3605-5000